

청년아! 세상의 울림을 들어라!



윤 용 택 (철학과 교수)

I

인생에 사계가 있다면, 청년은 그야말로 인생에서 푸르른 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생을 하루에 비유한다면 청년은 여명이 밝아오는 동틀 무렵에 해당한다. 봄은 씨앗을 심는 계절이고,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시기이다. '청춘'이라는 말을 들으면 중학교 국어책에 실렸던 민태원의 수필 '청춘예찬'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과 같이 힘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이것이다. ...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은 청춘의 누리는 바 특권이다. 그들은 순진한지라 감동하기 쉽고, 그들은 점염이 적은지라 죄악에 병들지 아니하고, 그들은 앞이 긴지라 착목(着目)하는 곳이 원대하고, 그들은 피가 더 운지라 현실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의 보배를 능히 품으며, 그들의 이상은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열정과 패기로 넘쳐야 할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 청년들이 사랑,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와 집을 포기하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면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비하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옥 같다는 것이다. 참으로 암울하고 슬프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동안 우리는 “잘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며 앞만 보고 달렸다. 잘 살기 위해서는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학생도 교수도, 학교도 사회도, 개인도 기업도, 지역도 국가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다그쳤고, 지금도 다그치고 있다. 그 결과 무역 규모도 규모 세계 10위 이내를 자랑하게 되었고, 1인당 총생산액(GDP)이 세계 30위 안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자살률과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고, 출산율과 행복지수는 최저인 사회가 된 것이다. 경제기적은 이뤘지만 행복을 잃은 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경쟁사회이다. 우리에게 일등만 의미 있고 나머지는 들러리가 되고 있다. 1%를 위해 99%가 희생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스포츠 세계대회에 출전한 것만도 자랑스러워 할 일인데, 우리에게 금메달만 의미있고,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큰 의미가 없다.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하는 무한경쟁! 이제는 무한경쟁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린다. 하나만 남고 모두가 다 죽고 나면, 살

■ 대학생들의 울림

아남은 그 하나는 어떻게 될까?

경쟁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살아남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는 다른 이를 배려할 겨를이 없다. 용산참사와 세월호침몰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도, 밀양과 강정에서 억울한 주민들이 고통스레 울부짖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 어떤 사건도 우리를 놀래키지 않는다. 전쟁, 폭발, 침몰, 매몰, 지진, 태풍, 홍수, 산사태 … 등으로 수백 수천 수만명이 죽었다 해도 그러려니 할 뿐이다. 이제는 학생도 교수도, 일상인들도 아예 그런 일에 관심조차 없다. 나만 죽지 않고 다치지 않으면 된다. 생명의 존엄성은 그저 생명철학 시간이나 나오는 말이 되었다. 경쟁이 우리나라의 경제기적을 만들었지만, 행복을 잃은 나라로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곧 자신이 뒤쳐지는 걸 의미한다. 무한경쟁에서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단절된 채 나 홀로, 오로지 교실, 강의실, 독서실, 고시원, 도서관, 연구실에만 갇혀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나와 너는 있지만, 우리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는 관광지에 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 부탁하는 법이 없다. 셀카봉이 있어서 더 이상 남과 소통할 필요도 이유도 없게 된 것이다. 한 학기 수업을 같이 들어도 서로 이름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같은 과를 졸업해도 4년 동안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와 가족, 그리고 몇몇 친구를 제외하면, 이제는 부를 이름이 별로 없다. 부를 이름이 없는 세상, 그리고 그러한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썰렁하고 무의미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을 한번 읽어 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렇다. 내가 저들의 이름을 모르는데 저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저들이 내 이름을 모르는데 내가 저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저들에게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고, 저들은 나에게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인간들끼리는 그래도 낫다. 자연에 대해서는 더욱 더 모른다. 우리가 아는 풀, 꽃, 나무, 곤충, 새 이름이 몇이나 될까. 아는 꽃 이름, 나무 이름을 대보라 하면 다섯 손가락을 꼽기가 쉽지 않다. 밤하늘에 별을 봐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이다. 낮에 꽃 볼 일도 밤에 별 볼 일도 없다. 그저 소음과 적막 속을 걸어갈 뿐이다. 모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이긴 하나 의미가 없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면, 세상과 그 속에서 영위하는 내 삶 자체도 의미 없다. 우리가 주변의 오름, 꽃과 나무, 곤충과 동물 이름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승강기에 누군가 커피를 엮질러도 닦으려는 이가 없다. 빈 강의실에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도 아무도 끄려 하지 않는다. 휴게실에 문이 열린 채 에어컨이 돌아가도 창문을 닫는 이가 없다. 길바닥에 종이컵과 캔이 나뒹굴어도 아무도 주우려 들지 않고, 바닷가에 술병이 깨어져 있어도 아무도 치우지 않는다. 내가 있는 곳의 주체요 주인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 곳의 객(客)이고, 이방인이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Ⅱ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고, 즐겁고, 기쁘고, 의미있게 살 수는 없는 걸까? 불가(佛家)에 “수(隨)처(處)작(作)주(主) 입(入)처(處)개(皆)진(眞)”이라는 말이 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의 주인이 된다면, 그곳이 진리의 세계, 즉 천국이요 유토피아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객(客)이나 노예로 살지 말고 주체와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이다.

우리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국이고 우리나라는 주변국이고, 서울이 중심이고 지방은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서 있는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지금 그대가 있는 곳을 한번 둘러보라.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라도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이다. 지금 있는 그 곳에서 계속 걸어간다면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는 내가 있는 곳이 지구의 중심이요, 세계의 중앙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지옥 같은 사회도 만들었지만 천국 같은 사회도 만들 수 있다. 세계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스위스도 처음부터 천국이 아니었다. 오죽하면 스위스인들이 먹고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용병으로 살았을까.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암벽에 창에 찔려 죽어가는 ‘빈사의 사자상’이 조각되어 있다. 스위스인들이 먹고살려고 프랑스대혁명 당시 용병으로 갔다가 876명이 전멸한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새겨놓은 것이다.

청년아, 취업을 못한 게 그대들의 잘못이 아니다. 결코 자신을 못난이라고 자학하지 말라. 그대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 기성세대들의 탓이다. 청년아, 그들에게 헬조선을 물려준 기성세대들을 한 없이 욕하고 경멸해다오. 청년아, 기성세대에게 크게 기대하지 말라. 청년! 그대들이야말로 헬조

선을 변혁할 주체이다.

86세대(1980년대 대학을 다닌 1960년대생)들이 독재정권을 타도하여 민주사회를 열었듯이, 19세대(2010년대 대학을 다니는 1990년대생)인 그대들이 헬조선을 변혁해야 할 주체들이다. 우리 세대는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암흑의 독재시대에 맞서기 위해 짱돌을 던졌다. 하지만 헬조선을 변혁하기 위해 그대들이 던져야 할 것은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용지이다. 올해와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누가, 그리고 어느 정당이 그대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인지를 잘 선택하기 바란다. 청년아, 그대들이 바로 지옥 같은 이 사회를 변혁하여 천국으로 만들 주역이라는 걸 잊지 말아다오.

세상에는 시험 없이도, 치열한 경쟁이 없이도 잘 살아가는 나라들도 있다. 청년아, 지금부터는 시험 못 봤다고 그대 자신을 학대하지 마라.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청년아,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라.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은 시험에 치이고 취업에 목매다 보니까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하였다. 고통스럽게 우는 인간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존재의 울림을 느끼지 못하는 식물인간으로 되고 만 것이다. 청년아, 같은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둘러싼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공감능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라.

저기 보이는 바위도, 흐르는 강물도, 하늘의 구름도, 넘실대는 파도도, 들판 위의 풀꽃도, 초원을 달리는 노루도, 하늘을 나는 비둘기도, 바다 위를 솟구치는 돌고래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너와 나도 모두 수많은 원소들로 이뤄져 있다. 우리는 우주 속의 수많은 원소들을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배출하면서 살다가 결국 언젠가는 다시 우주의 일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 특히 나란 존재가 태어나게 된 것은 확률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참으로 희귀한 사건이다.

지금과 같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아름다움을 체험하

대학생활의 울림

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절대와 무한과 영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다시 얻기 어려운 귀한 기회이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여한 없이 살아야 한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것만큼 성장한다. 나의 크기는 내 체험과 사고의 크기이다. 무한한 우주에 비하면 나란 존재는 한 점에도 못 미치고, 영겁의 세월에 비하면 내 삶은 한 순간에도 못 미친다. 청년아, 한 점, 한 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삶을 무한히 그리고 영원히 확장시켜보라.

그대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가 잘하는 것(제일 자신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대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에 매진해라. 그리고 그것들을 하도록 해라.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고, 해야 될 게 하나로 합치되면, 금상첨화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그 가운데 세 개, 아니면 두 개, 정 아니면 단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많은 곳을 여행하고 체험해라, 많은 책을 읽고 강좌를 들어라, 위대한 철학자와 예술가와 종교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대화를 하고 사색을 해라. 오래된 유물을 만나고 최첨단 기기를 접해보고, 좋은 예술작품과 공연을 감상하라. 그러면서 같은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영혼의 울림을 느껴보라. 산에 가고, 숲길을 걷고, 해변으로 가라. 낮에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을 보라. 그러면서 언젠가는 돌아갈 아니 지금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주의 울림을 들어보라.